

자기애와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 특권분노/허용적 성태도의 매개효과와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공감의 조절효과*

박 다 원 이 인 혜†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자기애성 성격과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 그리고 이 둘 간을 매개 또는 조절하는 심리적 변인들을 확인하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 개발과 교육 및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강원대학교 남학생 264명에게 자기애적 성격 검사(NPI), 병리적 자기애 검사(PNI), Hendrick 다차원적 성태도 질문지(MSAS),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질문지(CERQ), 아동성폭력범 공감척도(CMEM), 성폭력 가해 행동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특권분노와 허용적 성태도의 매개효과와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상태공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특권분노의 매개효과와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허용적 성태도의 매개효과와 상태공감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였다. 이는 허용적 성태도가 성폭력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상태공감이 낮은 경우에 자기애가 높으면 성폭력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자기애가 높은 경우에 상태공감이 낮을 때는 성폭력이 높게 나타났지만, 자기애가 높더라도 상태공감이 높다면 성폭력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낮은 상태공감이 성폭력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높은 상태공감은 성폭력에 대한 보호요인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폭력 가해 행동의 원인은 특권분노보다는 허용적인 성태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는 정서조절 훈련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태공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훈련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논의에서 보다 자세한 결론과 시사점 및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자기애, 성폭력, 특권분노, 허용적 성태도, 인지적 정서조절, 상태공감

* 본 논문은 이인혜의 지도를 받은 박다원의 석사학위논문을 재구성한 것임.

본 논문은 2015년 임상심리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논문으로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 : 이인혜,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Tel : 033-250-6850, E-mail : inheyi@kangwon.ac.kr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집중된 현재의 연구 동향에서 벗어나, 한국에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폭 넓은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국내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들이 부족하고,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해자에 대한 연구에 비해서 피해자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더 많이 수행되었다. 국외에서는 자기애와 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들이 수년간 축적되었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성폭력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매우 부족하므로 많은 경험적 근거들이 필요하다.

현재 모든 성폭력은 법적으로 명백하게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90년대 초반까지 성폭력은 주로 여성의 성에 대한 폭력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다가 90년대 중반 성폭력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별과 무관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범위도 확대되어 성추행, 강간, 강간미수, 조직의 위계 구조 내에서의 성희롱, 아동 성추행 등이 모두 성폭력으로 간주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4).

여성학적인 관점에서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로 강간뿐 아니라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온라인을 통한 성폭력 등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굴욕적인 감정, 신체적 손상 및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된다(신현기, 이상열, 2006).

또한, 심리학적 관점의 연구에서도 성폭력은 문화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물리적인 혹은 사회적인 위협을 통해 타인에게 육체적, 심리적 압력을 주고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된다(고선영, 양

중희, 이수정, 2004).

본 연구에서는 20대 초, 중반 남성을 대상으로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조절효과를 가지는 변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자기애와 성폭력이 관계가 있고, 특권분노와 성적 지배, 허용적 성태도와 성적 대상화 네 가지 요인들이 사이를 매개한다는 것은 이미 박갑제와 임성문(2013)의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이런 이중 경로모형은 이론적 근거를 외국의 연구결과에 두고 있다. 그러나 문화 및 인종에 따라 자기애와 이에 관련된 변인들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Zeigler-Hill과 Wallace(2011)의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외국의 연구결과를 대한민국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2차 매개변인으로 제안된 성적 지배와 성적 대상화는 여성주의 시각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성폭력으로 간주되고 개념이 모호한 실정이다. 성적 지배는 성적으로 여성을 지배하려는 강한 동기로 정의되고, 성적 대상화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태도를 말한다(박갑제, 임성문, 2013). 이처럼 두 개념은 이미 성폭력의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성적 지배와 성적 대상화를 2차 매개변인으로 연구하는 것은 성급한 접근일 수 있다. 더욱이 선행연구에서 특권분노와 허용적 성태도의 다중 매개효과가 보고되기는 했지만, 성폭력에 대한 설명력이 약하고 일관되지 않다. 이런 이유들에서 성적 지배와 성적 대상화를 제외하고, 특권분노와 허용적 성태도를 각각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여 두 변인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자기애적인 사람들과 성폭력 간에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애적인 모든 사람들이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며, 반

대로 모든 성폭력 범죄자들이 자기애적인 사람인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자기애와 성폭력 사이에 관계를 조절하는 어떤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자기애와 성폭력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성폭력의 직접적인 원인을 탐색하는데 집중해왔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까지 연구 결과로는 자기애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 본 연구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비록 성폭력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선행연구들은 자기애를 성폭력에 대한 위험요인들 중 하나로 제안하였다. 자기애는 강간통념 수용과 정적 관계가 있고, 공감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ushman, Bonacci, Dijk, & Baumeister, 2003). 또, 신체 접촉, 강간미수, 강간 등 모든 유형의 성폭력이 자기애와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Widman & McNulty, 2010). 특히, 박갑제와 임성문(2013)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애적인 남성들은 여성의 성적 거부가 자기(self)를 손상시킨다고 받아들여 자기애적 분노를 보이게 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여성을 성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동기가 나타나고 성폭력을 저지르게 된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자기애적인 남성들은 가능한 많은 여성들과 성적 관계를 가지고 자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런 성향 때문에 여성들을 공감하고 교류할 대상이 아니라 단지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게 되어 성폭력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연구들을 고려하면, 자기애는 ‘인지정서조절’ 및 ‘공감’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

고,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양상을 완전히 다르게 변화시킬 것이다. 더욱이 인지정서조절과 공감 능력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변화 가능하고, 자기애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더라도 성폭력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 혼입가능성이 있는 인지정서조절과 공감을 연구설계에 각각 독립적인 하나의 변인으로 투입하여, 인지정서조절과 공감의 혼입 가능성을 없애는 동시에, 두 변인들과 자기애 간의 상호작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인지정서조절에 관한 김은희와 강승호(2010)의 연구에 따르면, 부적응적인 분노표현과 부적응적인 인지정서조절이 관계된다. 또한, 성장기 폭력 경험과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에 대한 최재희(2012)의 연구에서는 분노조절이 성폭력 가해 행동의 예측변인이라고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현재 성폭력으로 수감된 사람들을 교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인지행동적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공통적으로 정서조절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훈련목표 중에 하나라는 점은 성폭력 범죄자들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관점에서 자기조절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게다가, 성폭력 범죄자들이 비범죄자에 비해서 충동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Mouilso, Calhoun, & Rosenbloom의 연구(2013), 특히, 충동성의 하위요인 중에서도 긍정적으로 고조된 정서상태와 부정적으로 고조된 정서상태가 성폭력 범죄자들에게서 높다는 결과는 성폭력 범죄자들에게서 특히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수감시설에서 성폭력 범죄자 훈련 목표가 정서조절이라는 것은 성폭력 범죄자의 치료에서 정서조절이 중요한 영역임을 보여준다. 인지

정서조절과 성폭력이 관련성이 있고, 자기애적인 사람의 인지정서조절이 적응적이거나 부적응적일 때, 성폭력과 관계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자기애적인 사람이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을 사용할 때, 성폭력이 낮고, 반대로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을 사용할 때, 성폭력이 유의미하게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인지정서조절이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조절 변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때,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은 성폭력에 대한 보호요인이 될 것이고,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은 성폭력에 대한 위험요인이 될 것이다.

공감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정의되고 세분화 되었는데, 그 중 상태공감은 성폭력, 교통사고처럼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가변적인 속성의 공감으로 Steibe와 동료들(1979: 박성희, 2004에서 재인용)이 제안한 개념이다. 성폭력은 비상식적이고 평장히 특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자기애와 성폭력에 관련된 대부분의 공감 연구에서는 안정된 성격차원의 특성공감에 집중해왔다. 그러므로, 성격의 차원으로 분류되는 특성공감보다는 상황에 영향을 받는 상태공감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김정아, 구해경, 현명호(2013)는 특성공감이 높더라도 상태공감이 낮다면, 긍정적인 행동에 비해서 부정적인 행동이 많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들은 아동 성폭력범 공감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상태공감을 측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태공감이 높을수록 피해자에 대한 긍정적 사회반응을 많이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기애적인 사람들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 폭행 피해자 등 다른 상황에 처한 개인에게는 높은 공감을 보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비단 자기애적인 사람들의 경우뿐만 아니라 정상인들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공감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공감을 성격처럼 일관된 속성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기애적인 사람이 상태공감이 낮을 때, 성폭력이 높고, 상태공감이 높을 때, 성폭력이 낮을 수 있다. 이것은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상태공감이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높은 상태공감은 성폭력에 대한 보호요인이 될 것이고, 상태공감이 낮은 것은 성폭력에 대한 위험요인이 될 것이다.

본 연구자는 네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과 2는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고, 가설 3과 4는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가설 1.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특권 분노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허용적 상태도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즉, 자기애가 높더라도 적응적 정서조절이 높다면 성폭력 가해 행동이 낮을 것이다.

가설 4.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상태공감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즉, 자기애가 높더라도 상태공감이 높으면 성폭력 가해 행동이 낮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강원대학교에서 정신건강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남학생들을 임의표집하여 26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중 결측값이 포함된 54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21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 평균은 22.6세, 표준편차는 2.31이었다.

측정도구

자기애

자기애성 성격 검사(*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는 Raskin과 Hall(1979, 1981)이 DSM-III의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기준을 기반으로 개발한 자기보고식 검사로 총 54문항이었으나, 이후 Raskin과 Terry(1988)에 의해 40문항으로 단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수정(1999)이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NPI는 자기애적인 내용과 자기애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두 문장을 제시하고, 두 문장 중 자신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강제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채점한다. 총점은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애 성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한수정(1999)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3이었다.

특권 분노

특권분노를 평가하기 위해 Pincus 등(2009)이 개발한 병리적 자기애 척도(*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NI*)를 기반으로, 양진원(2012)이 번안하고 국내 타당화 한 척도에서 특권분노에 해

당하는 5문항을 사용하였다. PNI는 자기보고 방식의 질문지로 0점(전혀 나 같지 않다)에서 5점(매우 나 같다)까지 6개의 점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Pincus 등(2009)의 원판 PNI는 7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양진원(2012)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요인 분석한 결과,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변동하는 자존감, 웅대한 환상, 평가절하, 착취, 특권분노, 자기희생-자기고양. 본 연구에서는 양진원의 요인구조를 사용하여 특권분노를 평가하였다. 특권분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박갑제, 임성문의 연구(2013)에서 신뢰도는 PNI의 .8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9로 나타났다.

허용적 성태도

Hendrick 다차원적 성태도 질문지(*Multidimensionality of Sexual Attitudes Scale, MSAS*)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관점에서 개인의 성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5점 리커트 척도,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보고하도록 설계되었다. MSAS는 Hendrick와 Hendrick(1987)에 의해 개발된 척도로 최초로 150개의 문항에서 시작하여, 연구를 거쳐 현재 43개의 문항으로 간소화되었다. 최인숙(2009)에 의해 번안되고 국내 타당화되었으며, 하위요인으로 성 허용성(우발적 성관계) 21문항, 성 관념(성 책임감) 7문항, 교감(이상적 성관계) 9문항, 도구(생물학적 성관계) 6문항 4가지를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는 15개의 성 허용성 문항들만 선택하여 질문을 실시하였다. 최인숙의 연구(2009)에서 신뢰도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로 나타났다.

인지정서조절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질문지(*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를 사용하였다. CERQ는 Garnefski(2001)에 의해 개발된, 개인의 인지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5점(거의 항상 그렇다)까지 응답하도록 구성되었고, 9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하위요인은 조망 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정적 초점변경,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수용, 긍정적 재평가, 파국화 총 9가지로 구분된다. 하위요인들 중 조망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정적 초점변경, 수용, 긍정적 재평가는 적응적 전략에 포함되고,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는 부적응적 전략으로 분류된다(김은희, 강승호 2010). 본 연구에서는 Garnefski(2001)에 의해 개발된 것을 김소희(2004)가 변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김소희의 연구(2004)에서 신뢰도는 .66에서 .85까지 나타났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82로 나타났다.

상대공감

아동 성폭력범 공감 척도(*Child Molester Empathy Measure, CMEM*)를 사용하였다. CMEM은 Fernandez와 동료들(1999)이 아동 성폭력 가해자들의 공감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총 50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영구적인 흉터가 남은 아동, 성인과 성관계를 한 아동, 가해자에게 당한 피해자 3가지 상황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림이 제시된다. 질문지는 Part A와 Part B로 나누어지는데, Part A는 30문항으로 각 상황의 피해자가 특정 감정을 얼마나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고, Part B는 20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상황에서 자신에게 생겨나는 공감 반응

을 측정한다(김정아 등, 2013). 본 연구에서는 Part B에 해당하는 2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특정한 감정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제시되고, 해당 문항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느끼는지 0점에서 10점까지 11점 리커트 척도로 보고하도록 구성된다. 총점은 최소 0점부터 최대 200점까지로 높은 점수일수록 높은 공감능력을 반영한다.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김정아 등의 연구(2013)에서 Part B 20문항의 신뢰도는 .80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0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행동

이형직(2008)이 사용한 성폭력 가해 행동을 묻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난 1년간 성폭력 가해 행동을 얼마나 했는지를 1점(없음)에서부터 5점(10번 이상)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총 6문항으로 약한 수준의 성폭력인 음란전화나 문자, 성적인 농담에서부터 강간시도와 강간에 이르는 강한 수준의 성폭력 경험을 포괄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이형직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60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통계분석은 SPSS Windows 버전 21을 사용했다. 가설 1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특권 분노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와 가설 2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허용적 성태도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3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인지정서조절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와 가설 4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상태공감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서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다중 회귀분석 절차에 따라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을 확인한 후 집단 간 구체적인 평균 비교를 위해 자기애와 상태공감 상/하위 각각 40%를 고 집단과 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원 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초통계

본 설문 연구를 통해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특권분노/허용적 성태도 및 인지정서 조절/상태공감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전체 변인들의 상관은 표 1과 같다. 자기애는 특권

분노, 인지정서조절, 허용적 성태도, 성폭력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특히, 허용적 성태도와도 상관이 높게 나타났고($r=.25, p<.001$), 특권분노와도 약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r=.14, p<.05$). 게다가 자기애는 성폭력과의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4, p<.05$). 성폭력은 특권 분노 및 인지정서조절과 관계가 없었지만, 허용적 성태도와 정적 상관이 있었고($r=.31, p<.001$), 제한적으로 상태공감($r=-.13, p>.05$)과 부적 상관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특권분노는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r=.33, p<.001$).

특권분노와 허용적 성태도의 매개효과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특권분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 (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표 1. 자기애, 특권분노, 인지정서조절, 상태공감, 허용적 성태도, 그리고 성폭력 간의 상관 관계 분석

	1	2	3	4	5	6	7
1. 자기애 ($M=14.44, SD=6.61$)	-						
2. 특권분노 ($M=10.20, SD=4.47$)	.14*	-					
3. 적응적 정서조절 ($M=65.83, SD=10.34$)	.18**	-.01	-				
4. 부적응적 정서조절 ($M=45.18, SD=7.21$)	.07	.33***	.10	-			
5. 허용적 성태도 ($M=48.31, SD=9.59$)	.25**	.13	-.01	.06	-		
6. 상태공감 ($M=144.64, SD=21.75$)	.00	.09	.12	.05	-.10	-	
7. 성폭력 가해행동 ($M=7.61, SD=2.37$)	.14*	.03	-.05	.09	.31**	-.13	-

주. * $p<.05$, ** $p<.01$, *** $p<.001$.

실시하였다. 성폭력에 대한 자기애의 영향($\beta = .14, p < .05$)은 유의미 하였으나, 성폭력에 대한 특권분노의 영향($\beta = .01, p > .05$)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특권분노의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또 다른 매개변인으로 제안된 허용적 성태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특권분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적 경험이 늘어나고, 사회장면에 적응하기 위해 자기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연령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허용적 성태도에 대한 자기애의 영향($\beta = .26, p < .001$)은 유의미하였고 성폭력에 대한 자기애의 영향($\beta = .14, p < .05$)도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허용적 성태도를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자기애의 영향($\beta = .07, p > .05$)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허용

적 성태도의 영향($\beta = .29, p < .001$)은 유의미하였다. 즉, 자기애의 효과가 .14에서 .07로 .07만큼 감소하여 유의미하지 않게 되었고, 허용적 성태도의 효과가 .29로 유의미하였으므로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허용적 성태도의 완전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은 간접효과의 분포를 정상분포로 가정하기 때문에 실제 표본분포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므로 통계적 검증력이 감소한다(Preacher & Hayes, 2004). 그래서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Hayes(2013)가 제안한 부스트랩 분석을 실시하였다. 5000회 반복추출을 시행하여 효과 크기를 구간 추정한 결과, 효과크기의 평균은 .03이고 99% 신뢰구간에서 하한계 임계치는 .01였고, 상한계 임계치는 .06으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허용적 성태도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였다. 결과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표 2.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허용적 성태도의 매개효과

변수	성폭력 가해 행동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t	β	t	β	t
통제변수						
연령	.0685		.0573		.0108	
투입된 변수						
자기애			.142.01*		.071.06	
허용적성태도					.294.07***	
R^2	.00		.02		.10	
adj. R^2	-.00		.01		.08	
F	.72		2.38		7.23***	
ΔR^2	.00		.02*		.07***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3. 허용적 상태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스트랩 결과

변수	Boot M	Boot SE	99% 신뢰구간	
			LLCI	ULCI
허용적 상태도	.03	.01	.01	.06

주. "LLCI"는 Low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는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을 의미한다.

인지정서조절과 상태공감의 조절효과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인지정서조절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지정서조절을 적응적 전략과 부적응적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애와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투입한 결과, 자기애의 주효과($\beta=.15, p<.05$)만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자기애와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지만, 상호작용 효과($\beta=.54, p>.05$)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동일한 분석 절차를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자기애와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의 상호작용 효과($\beta=.46, p>.05$)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적응적이든 부적응적이든 정서조절 전략의 조절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인지정서조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태공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연령을 통제하기 위해 모형 1에서 통제변수로

표 4.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상태공감의 조절효과

변수	성폭력 가해 행동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t	β	t	β	t
통제변수						
연령	.06.85		.06.81		.05.80	
투입된 변수						
자기애			.14	2.02*	1.21	2.69*
상태공감			-.16	-2.28*	.23	1.34
자기애 · 상태공감					-1.15	-2.41*
R^2	.00		.05		.08	
adj. R^2	.00		.03		.06	
F	.72		3.35*		4.03**	
ΔR^2	.00		.04*		.03*	

주. * $p<.05$, ** $p<.01$, *** $p<.001$.

연령을 투입하였다. 모형 2에서 자기애와 상태공감을 투입한 결과, 자기애($\beta=.14, p<.05$)와 상태공감($\beta=-.16, p<.05$)의 주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였다. 모형 3에서 자기애와 상태공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상호작용 효과($\beta=-.115, p<.05$)는 유의미하였다. 즉,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상태공감의 조절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모형 2의 R^2 은 .05이었고 모형 3의 R^2 은 .08이었다. 상태공감의 조절효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증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균치를 비교하기 위해서 자기애와 상태공감에서 각각의 상위 40%를 고 집단, 하위 40%를 저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성폭력에 대한 자기애와 상태공감의 이원배치

분산분석 결과에서도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142)=4.46, p<.05$). 구체적으로 자기애와 상태공감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상태공감이 낮은 경우, 자기애 저 집단의 성폭력 점수 평균은 7.00이고 자기애 고 집단의 평균은 8.48로 차이가 나타났고, 상태공감이 높은 경우, 자기애 저 집단의 성폭력 평균은 7.55이고 자기애 고 집단의 평균은 7.39로 자기애가 낮은 경우와 상반되는 유형의 차이가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으므로 어떤 집단 간의 평균 차이에 의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SPSS 명령문을 이용하여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양병화, 2013). 상태공감 수준에 따른 자기애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시행한 결과, 자기애의 효과는 상태공감 저 집단($F(1,142)=8.00, p<.01$)에서만 유의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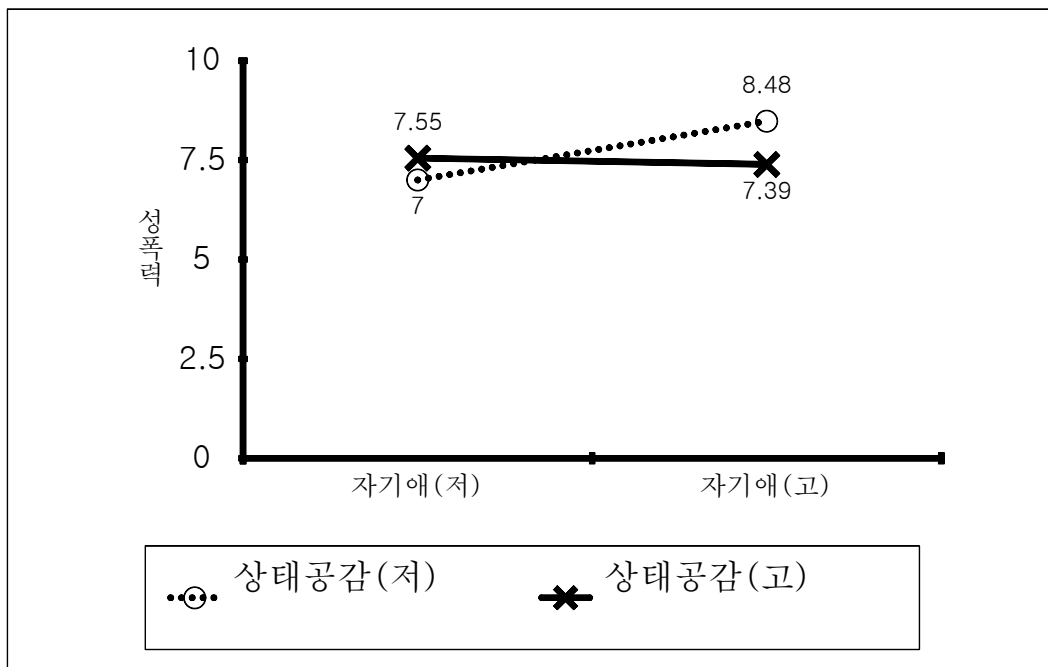


그림 1. 자기애와 상태공감의 상호작용

였고, 상태공감 고 집단($F(1,142)=0.10, p>.05$)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상태공감이 높을 경우, 자기애가 높더라도 성폭력 가해행동이 높게 나타나지 않지만, 상태공감이 낮을 경우에는 자기애가 높으면 성폭력 가해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자기애의 효과가 상태공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호작용 유형을 알아보기 쉽게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성폭력과 관련된 심리학적인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재발방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특권분노와 허용적 성태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특권분노가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과 허용적 성태도가 성폭력에 영향을 주는 모형에서 각각의 모형마다 치료적 함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지정서조절과 상태공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1에서 자기애와 성폭력 간의 매개변인으로 제안된 특권분노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 1에서 자기애와 특권분노의 관계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특권분노와 성폭력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은 특권분노에 관한 연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특권분노와 훼손된 자기개념을 보상하고자 하는 성적 지배 동기가 성폭력의 직접적인 원인이

라는 선행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가설 2에서 자기애와 성폭력의 또 다른 매개변인으로 제안된 허용적 성태도는 본 연구에서 성폭력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변수로 확인되었다.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허용적 성태도의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자기애보다는 허용적 성태도가 성폭력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애적인 남성들은 가능한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갖기 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성에 대한 이런 경향성은 개인의 성 태도를 개방적이고 가볍게 만든다. 성에 대해 가볍고 쉽게 생각하는 태도가 성폭력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런 결과는 허용적 성태도와 자기애, 정신병질, 성폭력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Mouilso & Calhoun, 2012; Reise & Wright, 1996; Wright & Reise, 199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 비해 성폭력에 대한 허용적 성태도의 설명력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 측정된 성폭력의 범위가 훨씬 넓었기 때문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성폭력만을 측정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가벼운 수준의 성폭력을 같이 측정하였다. 즉,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남성들은 가벼운 수준의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적 접촉을 쉽게 하는데, 이와 같은 행동들이 선행연구에서는 성폭력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 성폭력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허용적 성태도에 의해 설명된 성폭력은 대부분 가벼운 수준의 성폭력으로 초점이 집중되어 있다. 즉, 강제적인 수단이 동원된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은 단순

히 자기애적 분노나 허용적인 성태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따라오는 여성을 성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비정상적인 동기나 여성을 단순히 성적 도구로 취급하는 극단적인 태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가벼운 수준의 성폭력은 위와 같은 극단적인 태도들보다는 단순히 성에 대해 개방된 태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성폭력의 심각성에 따라 성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로는 성폭력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성폭력의 원인이 다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것은 성폭력에 대해 관심이 있는 후속 연구자들이 확인해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는 성폭력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요인을 밝혀내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가설 3에서 자기애와 성폭력 간에 조절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기애와 특권분노가 관련이 있고, 성폭력 범죄자들에게서 고조된 정서상태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고려하여 인지정서조절이 성폭력을 감소시킬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이 실제로 성폭력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조된 분노정서를 인지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성폭력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연구자의 예상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이 높아지더라도 성폭력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이 높더라도 성폭력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한 가지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만든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가벼운 수준의 성폭력은 조절되지 못한 분노와 같

은 극단적인 정서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과도하게 허용적인 성에 대한 태도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서조절 전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권분노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자기애적인 사람들에게서 가벼운 성폭력의 원인은 특권분노가 아니기 때문에, 분노와 같은 정서를 인지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전략은 성폭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설 4에서 가정된, 상태공감은 자기애와 성폭력 간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기애 수준이 높으면서, 상태공감 수준이 낮을 때 성폭력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자기애 수준이 높은 경우, 낮은 상태공감 수준이 성폭력에 대한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애 수준이 높더라도 상태공감 수준이 높을 때는 성폭력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자기애 수준이 높을 때, 높은 수준의 상태공감이 성폭력에 대한 보호요인임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는 타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공감능력을 가진 남성은 여성의 생각이나 정서, 욕구에 대해 적절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을 줄이는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본 연구자의 예상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공감능력이 성폭력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꾸준히 제안되어 왔으나, 본 연구의 초점은 현재까지 많이 연구가 되어온 성격적인 속성의 안정되고 일관된 특성 공감이 아니라, 상황에 의존된 가변적인 속성의 상태공감 능력이다. 특성공감이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공감수준이 높을 것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개개인들은 각자가

겪었던 심리적·신체적·사회문화적 경험들이 매우 다양하고 그에 따라 외부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매우 다양하다. 이것은 똑같은 특성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외부 상황을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생각이나 정서를 파악하는 능력이 좋더라도 상태공감 능력이 항상 높다는 확신이 없으므로, 성폭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해 섬세하게 인식하고 반응하는 상태공감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고, 높은 수준의 상태공감이 성폭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유의한 몇몇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를 왜곡 없이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먼저, 연구가 20대 초, 중반 남성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다른 연령층이나 여성, 실제 성폭력 범죄 수감자와 같은 임상적 표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성적 욕구가 가장 활발하고, 사회적으로 비교적 미성숙한 20대 남성들로부터 얻어진 결과이므로, 사회적인 관점에서 일정 수준 성장하고 신체적인 활력이 감소하는 나이대의 남성들에게 연구결과를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결혼 여부 혹은 자녀, 안정된 직장과 같은 요인은 허용적 성태도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년층이나 장년층에서는 연구변인들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지도 모른다. 게다가, 여성들이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여성의 성폭력 가해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 보편적으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성에 대해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태도가 덜 개방적일 수 있고, 공감능력 역

시 남성들보다 높으므로 조절효과를 보이는 요인 자체가 달라지거나 성폭력 가해행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들은 다른 연령층의 남성들이나 여성들에게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한계점은 성폭력 가해경험을 측정하는 방식이 자기보고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문화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여지길 원한다. 그러나 성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응답은 자신의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을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보고에서 성폭력 가해 행동을 축소보고 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응답을 왜곡하여 축소보고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하지만 성폭력 가해 정도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왜곡하는 것은 오히려 본 연구에서 성폭력과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를 약화시켰을 것이다. 즉, 실제 변인들 간의 관계보다 측정된 변인들의 관계가 과소추정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 결과, 강제적인 신체접촉 경험이 23%, 강간시도 경험이 4%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48%는 성폭력 가해 경험이 아예 없었으며, 나머지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52% 중 강제적인 신체접촉 경험이 약 5%, 최소 1번 이상 강간시도 경험이 약 1%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과는 다르게 성폭력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성폭력 가해 행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을 반영한다. 그리고 강제적인 신체접촉 경험과 최소한 한 번 이상의 강간 시도 경험은 선행연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가해경험을 축소보고 했을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세 번째는 성폭력 가해 행동을 보인 자기에 적인 남성들에게서 특성공감과 상태공감의 차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이를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김정아 등(2013)은 동일인에게서 특성공감과 상태공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특성공감에 대한 측정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특성공감과 상태공감이 모두 낮은 것인지 혹은 특성공감에 비해서 상태공감이 더 낮은 것인지 등과 같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엄격히 말하면 본 연구에서 실제로 특성공감이 아니라 상태공감을 측정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이처럼 여러 한계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충분한 시사점을 가진다. 먼저, 변화된 성폭력의 정의를 연구에 반영하였다. 과거 성폭력에 대한 연구들은 성폭력을 신체적 접촉이 있거나, 성기의 삽입이 있을 때 혹은 강제적인 물리적 수단을 사용한 성적 접촉을 성폭력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여성들의 권리에 대한 목소리들이 커짐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정의도 변화되었다. 최근에는 성별과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 성폭력의 정의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고 법제화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변인을 결정하는 것은 과거의 연구보다 현재의 연구가 지금의 사회를 더 잘 반영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실제 사회 장면에 타당하게 적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수집된 자료가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 가해 행동은 적고, 가벼운 성폭력 가해 행동에 집중되어 있어 비교적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성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적 개입에 함의를 제공한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에 분노 조절 혹은 정서조절이 자주 포함된다(박상진, 신준섭, 2005). 그러나 분노가 성폭력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인지정서조절이 성폭력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 성폭력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면 인지정서조절 훈련은 다른 치료 프로그램에 비해 불필요할 수 있다. 오히려, 상태공감에 주목하는 것은 현재까지 자기에와 성폭력에 대한 연구에서 초점을 맞춰왔던 특성공감이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정서를 조절하는 것보다 여성이 성폭력을 당하는 장면에서 피해자의 생각과 감정, 욕구를 민감하게 느끼도록 하는 훈련이 훨씬 효과적이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은 DSM-5에서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기준 7번으로 타인의 욕구나 감정을 인식하려는 동기의 결핍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박갑제와 임성문(2013)은 이런 측면을 자기애적인 남성들이 공감의 결여가 문제가 아니라 공감하고자 하는 동기의 결여로 인해 선택적 공감을 한다고 해석하였다. 명백하게 진단기준에 제시된 기준이므로 이러한 제안과 본 연구에서 측정된 상태공감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성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치료적 개입을 할 때는 단순히 특성공감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성폭력 피해자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대상에게 공감하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되도록 하는 훈련이 적절한 개입이 될 수 있다. 이는 성폭력 가해자 치료에 요구되는 사회적 자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고, 명확하고 세부적인 목표를 제공함으로써 가해자들의 치료효과 증진

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성폭력과 관련된 심리학적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연구가 범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나 성에 관한 주제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연구하기에 조심스럽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국내에서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심리학적인 연구가 간간히 시도되고 있고, 의미 있는 결과들이 조금씩 축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일관된 설명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많은 요인들이 성폭력의 위험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도 자기애뿐만 아니라 정신병질이나 반사회성 같은 심리학적인 요인부터 알콜 사용 수준 혹은 강간신화의 수용수준과 같은 사회학습에 의해 형성된 것들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성폭력과 관련된다고 보고한다 (Baumeister, Catanese, & Wallace, 2002; Bushman et al., 2003; Foster, Shrira, & Campbell, 2006; Jonason & Tost, 2010; Mouilso & Calhoun, 2012; Mouilso & Calhoun, 2013; Mouilso et al., 2013; Widman & McNulty, 2010; Wright & Reise, 1997, 박갑제, 임성문, 2013). 그러므로 성폭력의 위험요인에 대한 일관된 설명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많은 요인들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성폭력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후속연구를 통해 반복 검증을 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과 관계가 있다고 제안된 요인들이 광범위한 만큼 성폭력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요인에 대해 더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성격차원의 특성들보다는 더욱 개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을 밝혀내는 것이 성폭력 범죄라는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사회문

제를 줄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성폭력의 심각성에 따라 성폭력의 원인이 다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허용적 성태도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면서 언급했듯이 지금까지는 성폭력의 심각성 정도를 구분할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당연하게도 성폭력의 심각성 정도에 따른 성폭력의 원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실제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수준의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수감자라 하더라도 각자의 성폭력 범죄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차후의 연구에서는 이들을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성폭력의 심각성 정도에 따른 원인을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성폭력 가해자들의 심리학적인 변인과 성폭력의 관계를 밝히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고선영, 양종희, 이수정 (2004). 성폭력 범죄의 원인과 개입전략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특집호), 117-146.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4). www.law.go.kr
- 김소희 (2004). 스트레스 사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희, 강승호 (2010). 자존감,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공격성 간의 관계. *교정연구*, (47), 119-143.
- 김정아, 구해경, 현명호 (2013). 연구논문: 남자 대학생의 성희롱 통념과 공감능력 및 성

- 추행 피해자에 대한 공감의 사회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6), 295-313.
- 박갑제, 임성문 (2013).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 경로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1), 45-44.
- 박상진, 신준섭 (2005). 외국의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연구. *형사정책*, 17(1), 313-336.
- 박성희 (2004). *공감학: 어제와 오늘*. 서울: 창지사.
- 신현기, 이상열 (2006).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의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16(1), 249-274.
- 양병화 (2013). *심리학 및 사회과학을 위한 조사와 통계분석*. 학지사.
- 양진원 (2012). 병리적 자기애 성향자의 웅대성과 취약성에 따른 정서적 특성.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형직 (2008).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이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간통념 수용의 매개효과와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인숙 (2009). Hendrick 다차원적 성태도 척도의 타당화.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재희 (2012). 성장기 폭력 경험과 성태도가 대학생의 성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분노조절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지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Beverly Hills: Sage Publishing.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서울: 학지사.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Baumeister, R. F., Catanese, K. R., & Wallace, H. M. (2002). Conquest by force: A narcissistic reactance theory of rape and sexual coerc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6(1), 92.
- Bushman, B. J., Bonacci, A. M., Van Dijk, M., & Baumeister, R. F. (2003). Narcissism, sexual refusal, and aggression: Testing a narcissistic reactance model of sexual coerc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5), 1027.
- Fernandez, Y. M., Marshall, W. L., Lightbody, S., & O'Sullivan, C. (1999). The child molester empathy measure: Description and examination of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1(1), 17-31.
- Foster, J. D., Shrira, I., & Campbell, W. K. (2006). Theoretical models of narcissism, sexuality, and relationship commitmen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3(3), 367-386.
-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8), 1311-1327.
- Hayes, A. F. (2013). <http://www.afhayes.com/>
- Hendrick, S., & Hendrick, C. (1987). Multidimensionality of sexual attitudes. *Journal*

- of Sex Research*, 23(4), 502-526.
- Jonason, P. K., & Tost, J. (2010). I just cannot control myself: The dark triad and self-contro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6), 611-615.
- Mouilso, E. R., & Calhoun, K. S. (2012). A mediation model of the role of sociosexuality in the associations between narcissism, psychopathy, and sexual aggression. *Psychology of Violence*, 2(1), 16.
- Mouilso, E. R., & Calhoun, K. S. (2013). The role of rape myth acceptance and psychopathy in sexual assault perpetration.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2(2), 159-174.
- Mouilso, E. R., Calhoun, K. S., & Rosenbloom, T. G. (2013). Impulsivity and sexual assault in college men. *Violence and Victims*, 28(3), 429-442.
- Pincus, A. L., Ansell, E. B., Pimentel, C. A., Cain, N. M., Wright, A. G., & Levy, K. N. (2009). Initial construction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21(3), 365.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 Raskin, R. N.,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2), 590-590.
- Raskin, R. N., & Hall, C. S. (1981).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lternative form reliability and further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2), 159-162.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5), 890.
- Reise, S. P., & Wright, T. M. (1996). Personality traits, cluster B personality disorders, and sociosexu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0(1), 128-136.
- Steibe, S. C., Boulet, D. B., & Lee, D. C. (1979). Trainee trait empathy, age, trainer functioning, client age and training time as discriminators of successful empathy training. *Canadian Counsellor*.
- Widman, L., & McNulty, J. K. (2010). Sexual narcissism and the perpetration of sexual aggressio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9(4), 926-939.
- Wright, T. M., & Reise, S. P. (1997). Personality and unrestricted sexual behavior: Correlations of sociosexuality in caucasian and asi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2), 166-192.
- Zeigler-Hill, V., & Wallace, M. T. (2011). Racial differences in narcissistic tendenci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5(5), 456-467.

논문 투고일 : 2015. 04. 14
1 차 심사일 : 2015. 05. 20
게재 확정일 : 2015. 07. 01

**Narcissism and sexual Aggression:
The Mediating Effects of Entitlement Rage and Sociosexuality,
and Moderating Effect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CERS) and State Empathy**

Da-Won Park

In-Hey Yi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pecific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maladaptive social behaviors in order to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a pragmatic inter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aggression. This was accomplished by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s of entitlement rage (K-PNI) or sociosexuality (K-MSAS) on sexual aggression, and moderating effect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K-CERQ) or state empathy (K-CMEM) on sexual aggression in narcissistic men. Data were obtained from male college students ($n = 264$) who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such as K-NPI and K-CMEM,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to examine these relationships. Both entitlement rage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were found to be unassociated with sexual aggression. Rather, sociosexuality was the mediating factor between narcissism and sexual aggression, Whereas state empathy was a moderating factor between narcissism and sexual aggression. These findings indicate a tendency for sociosexuality to increase sexual aggression in males. However, individuals with low state empathy are more likely to show sexual aggression than those with high state empathy, indicating that intervention for increased state empathy may be a more effective treatment tha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Key words : narcissism, entitlement rage, sociosexuality,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ate empathy, sexual aggression.